

#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3Q 실적시즌 공략법 : 전망치 상향 & 실적대비 저평가

- 삼성전자 실적 쇼크, 5만원대 진입.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 여부가 관건
- 미국 9월 소비 모멘텀(전월대비 0.2%) 견고. 중국 실물경기, 소비 회복 여부 중요
- 중국 9월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개선 기대. 한국 수출, 주식시장에 훈풍 유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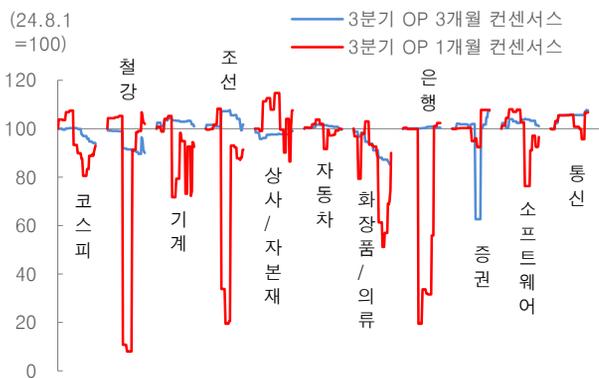
본격적인 3분기 실적시즌이 시작된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최근 한 달 동안 7.3% 하향조정되었다. 실적에 대한 불안심리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한 달 새 6.1% 레벨다운시켰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조정된 업종은 운송, 상사/자본재, 보험, 통신뿐이다. KOSPI 시장 전반에 실적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KOSPI 3분기 영업이익의 1개월 컨센서스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3개월 실적 컨센서스를 활용하지만, 실적시즌에 근접할 경우 1개월 컨센서스가 프리어닝 시즌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분기 영업이익 1개월 컨센서스가 상향조정 중인 업종에는 철강, 기계, 조선, 자동차, 화장품/의류, 은행, 증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이 중 **철강, 상사/자본재, 자동차, 화장품/의류, 은행, 증권**은 1개월 컨센서스가 3개월을 상회하고 있다.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에 집중한다. 그러나 실제 주가는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하락세를 보이거나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 실적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실적 기대, 또는 불확실성을 얼마나 선반영했는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8월초 실적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도 59,000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3분기 실적 결과가 컨센서스 고점대비 34% 레벨다운되었는데, 주가도 고점대비 33%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적 쇼크까지 주가는 이미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3분기 영업이익의 8월 이후 고점대비 변화율보다 주가가 저평가 받고 있는 업종에는 반도체, 자동차, 운송, 조선, 필수소비재, 건설, 통신, 은행, 철강 등이 있다. 이들 업종 중 자동차, 운송, 통신, 은행, 증권은 3개월, 1개월 컨센서스 모두 실적대비 저평가 영역에 진입해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조선, 은행, 증권, 통신** 업종은 실적대비 저평가이면서 1개월 컨센서스가 상향조정 중인 업종들이다.

1개월 컨센서스 상향조정 업종군



3분기 실적 전망대비 저평가 업종군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3분기 영업이익 전망 기준, 은행, 증권 보험은 3분기 순이익 전망 기준

##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시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